



#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로 이끄신 업적 조국청사에 영원하리



↑ 인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4(1995)년 7월  
← 탁월한 군사적지략과 비범한 통찰력을 지니시고 적들을 위락파락하시면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다박솔초소를 찾아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4(1995)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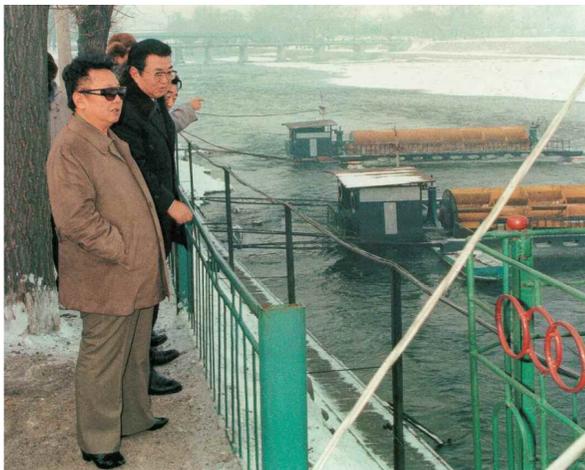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건설하도록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4(1995)년 3월



지혜산혁명시적표식비앞에서 아버지수령님께 가장 경건한 심정으로 경의를 드리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6(1997)년 4월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7(1998)년 10월



자강도에서 건설한 중소형발전소들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7(1998)년 1월



새로운 대고조의 봉화를 지퍼주시기 위하여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7(1998)년 3월



새로 꾸려진 신천박물관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7(1998)년 11월



승리자동차종합공장을 현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7(1998)년 12월



칠보산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7(1998)년 11월



서사시

영원한 애국의 불길

-이 서사시를 위대한 김정일동지 서거 3돐에 삼가 드린다-

주 광 일

이 강산에 차넘치는  
그리움의 힘으로  
흐르는 세월을  
삼가 이 언덕우에  
내 잠시 멈춰세우노라

꽃우에 또 꽃이 놓이고  
오르고 또 오르는 사람들의 물결  
낮이나 밤이나  
그칠줄 모르는  
12월의 만수대

여기 서니  
어제만 같구나  
청천벽력같이  
하늘처럼 밉고 살던 아버지를  
놓고  
피눈물의 홍수가 강토를 적시던  
3년전 그날이

한없이 자애로운 아버지의 영상  
더는 비울 길이 없어  
장군님을 목놓아 부르던 그날  
하늘도 흰눈을 뿌리며  
상제가 되었던 그날

수령님 계시는 이 언덕으로  
오열에 떨리는 손에 들고 올랐던  
12월의 꽃송이  
천만아들딸들의 피눈물이 배어  
대 돌 우에 무거웠던 추모의  
꽃송이

오늘은  
수령님과 장군님 함께 계시는  
영생의 이 언덕을  
그리움의 물결  
그리움의 꽃다발들이  
춘하추동 감싸안은구나

말해보자  
장군님 없인 한시도 못사는 이  
나라 인민이여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왔는가  
그리움의 3년세월  
천만의 심장에 더 깊이 새겨진  
삶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해와 달이 흐를수록 그리움  
사무쳐  
못 견디게 사무쳐  
절절하게 하신  
원수님의 그 말씀

-우리 장군님의 한생은  
타오르는 불길이었습니디

사랑하는 인민에게  
아버지의 정을 주고  
애국의 열로 온몸을 태우며  
한생을 불같이 사신  
우리 장군님

내 귀전에 들려오누나  
못 잊을 장군님의 그 음성  
-이 웃을 입은지  
어느덧 10년이 되었지만  
수령님을 잃고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부터 입고  
있는데  
나는 조국이 통일되는 날까지  
이 야전솜옷을 벗지 않겠소

가장 시련에 찌던 나날  
력사의 중대한 결단을 내리시며  
조국수호의 갑옷인양  
우리 장군님 입으신 야전복  
생의 마지막날까지  
벗지 못하신 단벌솜옷이여

장군님의 한평생을 생각할 때면  
때로는 기쁘게  
때로는 아프게  
눈앞에 어려오는  
우리 장군님의 야전솜옷

금시  
눈에 익은 야전복자락을 날리시며  
머나먼 전진길에서 돌아오시어  
우리를 반겨주실듯

가까이 다가서면  
3년전 그날처럼  
그 옷자락에선  
진호가의 흠뻑새 풍기어오고  
전진길의 눈바라소리도 들려여  
울듯

아, 그처럼 존엄했던 고난의 나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키  
이 땅우에  
선군의 길을 열어가신 장군님

이 가슴속에도 높이 솟아있느냐  
고생하는 인민들 생각에  
결을걸음  
피눈물을 삼키시며  
가야만 했던 장군님의 전선길  
그날의 만만사연을  
너 오늘 다시 이야기하느냐

천연바위를 쓰다듬는 산바람도  
차창을 때리며 안개발을 일구던  
그날의 비소리를 실어오는가  
내 마음속에 울려오는  
차바퀴소리 차바퀴소리...

옹벽도 없는 돌투성이 평길을  
돌아  
급시 무너질것 같은 벼랑턱을  
돌아

치달아오르는 장군님의 야전차  
한굽이 또 한굽이  
날벼랑길 백전두압이...

이 일을 어이하라  
끝내 지쳐내리는 야전차  
몇걸음뒤엔  
삼켜버릴듯 천길낭떠러지

야전차에 어깨를 들이미신  
장군님의 옷자락에  
사정없이 들췌워지는 흙팡울  
한치한치  
심장이 타들어버리는 장군님의  
길!

이런 험한 길  
이런 사생결단의 길이  
빨찌산의 아들로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날부터  
장장 수십살상  
우리 장군님의 한평생의 길을  
이루었나니

그 길이 없었다면  
정든 집 정든 거리  
아이들의 학교길도 없었으니  
이 나라 이 강토는  
시련의 눈보라속에 묻혔으니

아, 우리 지금껏 밟고 산 이 땅이  
우리 장군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전대미문의 시련과 난관을 헤쳐  
시며  
그 단벌솜옷을 입으시고 지켜  
주신  
내 나라 내 조국!

생각할수록  
그이 겪으신 천만고생  
그이 이루신 불멸의 업적이  
야 전 복자락에 어 려 오 고 또  
어려와  
더욱더 눈물에 젖는  
인민의 마음

오, 오성산아  
그때문이 아니더냐  
세월이 가도 뜨거워만지는  
불멸의 산악으로  
너의 메부리가 천만의 가슴에  
불덩어리마냥 솟아오르는것은

우리 장군님  
사생결단으로 넘고넘으신  
선군의 메부리들에 떠받들려  
김일성민족의 머리우에  
창창히 열린 저 푸른 하늘  
무궁할 인민의 이 세상

인민이 있어  
나라도 있고 조국도 있다는것이  
장군님의 신조  
불변의 의지였기에

사랑하는 인민을 감히  
핵구름으로 삼키려드는  
침략의 메부리들을 향해  
애국의 의지 섬팡으로 뽐으며  
번쩍! 핵보검을 뽑아드신  
철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

정녕  
그이의 한생은  
타오르는 불길이었다  
이 나라 이 땅을 품안아  
생의 박동을 주고  
태양의 열과 정으로  
강국의 꿈을 펼친  
애국의 불길

인류는 아직 모른다  
얕아진 단벌솜옷을 입으시고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자신을 강그리 불태우신  
우리 장군님 같은신분을  
찾을수 없으려  
우리 원수님  
천지운활유공장을 찾으신 그날  
이 공장을 꼭 봐보겠다 하시던  
장군님 생각에  
자주 걸음멈추시던 그 모습

잔디푸른 공장구내길엔  
아름다운 꽃들이 반겨웃는데  
이런 훌륭한 공장을  
이런 공원속의 공장을  
장군님께 보여드리지 못한것이  
가슴을 허린다 하시던  
갈리신 그 음성이어

-이 공장은 유복자공장이요  
장군님께서 온갖 간난신고를  
단신으로 겪으시며 마련하여  
후대들에게 물려주신  
유복자공장이요

유복자공장!  
이 땅에 남기고 가신  
천만고생과 바꿀수 없는  
장군님의 애국유산

장군님의 애국유산이 어찌  
이 공장만이었던가  
장군님의 뜨거운 숨결이 어린  
CNC의 기계바다  
신군조선의 국력을 떨치며  
우주로 날아오른 우리의 위성들  
이 땅의 흙 한줌, 조약돌 하나...

이 나라 이 강토가  
그대로  
장군님의 한생의 정이 어린  
애국유산이 아니던가

호려지는 내 눈앞에 다가선다  
장군님 똑잠마저 못 드시던  
전선길의 그밭들이  
차바퀴에 불이 일도록 달리던  
눈보라강행군길  
초강도강행군길

그 길우에서 라면졌다  
성강의 불화  
합남의 불길  
강선의 불  
희천속도의 불바람이

장군님 애국헌신의 장정우에  
일심단결의 대가 끊어쳐흐르고  
내 나라 내 조국은  
불매의 강국으로 추겨쳐올랐거니

우리 누리는 행복  
아이들의 교운 꿈  
이 땅우에 약동하는 생활은  
오직 한분  
우리 장군님 겪으신 천만고생과  
맞바꾼것이 아니더냐

행복한 날이 찾아올수록  
나라의 재부가 늘어날수록  
장군님의 한평생을 못 잊어  
고마움의 절을 드리며 사는  
우리 인민이 아니더냐

그리움의 나래를 저어가는  
내 마음속에  
어디선가  
사파랑기가 흘러드는구나

사람들이여  
내 여기서 그만 시행을 잃었노라  
철령아래 눈뿌리 아득히 펼쳐진  
파주의 바다가 너무나도 희한해서  
원수님 걸으신 파원속에 들어서니  
눈굽이 저절로 젖어들어서

우리 원수님  
철령아래 사파바다 설레이소리를  
자신의 운풍으로 듣고싶으시여  
앞장서 들어서신 사파발...

잊을수 없으려  
우리 원수님  
천지운활유공장을 찾으신 그날  
이 공장을 꼭 봐보겠다 하시던  
장군님 생각에  
자주 걸음멈추시던 그 모습

잔디푸른 공장구내길엔  
아름다운 꽃들이 반겨웃는데  
이런 훌륭한 공장을  
이런 공원속의 공장을  
장군님께 보여드리지 못한것이  
가슴을 허린다 하시던  
갈리신 그 음성이어

-이 공장은 유복자공장이요  
장군님께서 온갖 간난신고를  
단신으로 겪으시며 마련하여  
후대들에게 물려주신  
유복자공장이요

유복자공장!  
이 땅에 남기고 가신  
천만고생과 바꿀수 없는  
장군님의 애국유산

장군님의 애국유산이 어찌  
이 공장만이었던가  
장군님의 뜨거운 숨결이 어린  
CNC의 기계바다  
신군조선의 국력을 떨치며  
우주로 날아오른 우리의 위성들  
이 땅의 흙 한줌, 조약돌 하나...

이 나라 이 강토가  
그대로  
장군님의 한생의 정이 어린  
애국유산이 아니던가

호려지는 내 눈앞에 다가선다  
장군님 똑잠마저 못 드시던  
전선길의 그밭들이  
차바퀴에 불이 일도록 달리던  
눈보라강행군길  
초강도강행군길

그 길우에서 라면졌다  
성강의 불화  
합남의 불길  
강선의 불  
희천속도의 불바람이

장군님 애국헌신의 장정우에  
일심단결의 대가 끊어쳐흐르고  
내 나라 내 조국은  
불매의 강국으로 추겨쳐올랐거니

우리 누리는 행복  
아이들의 교운 꿈  
이 땅우에 약동하는 생활은  
오직 한분  
우리 장군님 겪으신 천만고생과  
맞바꾼것이 아니더냐

행복한 날이 찾아올수록  
나라의 재부가 늘어날수록  
장군님의 한평생을 못 잊어  
고마움의 절을 드리며 사는  
우리 인민이 아니더냐

그리움의 나래를 저어가는  
내 마음속에  
어디선가  
사파랑기가 흘러드는구나

사람들이여  
내 여기서 그만 시행을 잃었노라  
철령아래 눈뿌리 아득히 펼쳐진  
파주의 바다가 너무나도 희한해서  
원수님 걸으신 파원속에 들어서니  
눈굽이 저절로 젖어들어서

우리 원수님  
철령아래 사파바다 설레이소리를  
자신의 운풍으로 듣고싶으시여  
앞장서 들어서신 사파발...

그이의 가슴속에서  
사파꽃 피워 놓고 아비면 또  
오실가  
노래의 구절이 울리고있는지

아, 사파꽃  
조용히 불려만 봐도  
눈비에 젖은 그 야전복자락이  
어려오는  
내 나라의 사파꽃  
그리움의 사파꽃

너는 우리 장군님  
뻘기발을 드시며 걷고걸으신  
강행군길에서 피어나  
은 나라에 만발한  
무릉도원의 꽃이 아니냐

무릉도원의 꽃이어서  
생의 마지막해 봄날에도  
동해기슭의 사파꽃바다속에  
서시여  
신군시대에 《동해파일군》이 태어  
났다  
오늘은 만시름이 다 풀린다고  
그처럼 기뻐하시던 장군님

사파익는 가을날 꼭 다시 오겠  
다고  
사랑의 약속 남기고서는  
달리던 야전차의 차창문을 여시고  
-다시 오겠소!  
꼭 다시 와!  
이렇게 거듭 외우시며  
손저어주시던 우리 장군님

아아, 다시는 못 오셨으니  
사파꽃은 해마다 피고 지건만  
우리 마음속에 피는 그리움의  
사파꽃이아  
세월이 간다고 어이 지며  
장군님과 맺은 혈연의 정이  
이 땅의 누구인들 어이 불타지  
않으리

장군님 사랑을 쏟고  
정을 기울여  
이 땅에 뿌리신 만복의 씨앗들이  
열매되어 주렁주렁  
사회주의무릉도원을 이루었나니

만수대기슭에서  
조국땅 한끝까지  
더 아름다와지고  
더 젊어지는 이 강산은  
장군님의 넉원이 꽃피어나는  
그리움의 강산

얼마나 기뻐하시랴  
한평생 로로지  
인민밖에 모르신 우리 장군님  
문수물놀이장 파도우에 실려오는  
인민의 웃음소리를 들으신다면  
송도원 약원의 나날에 한아름  
안고 온  
아이들의 자랑도 들어주신다면

보아주신다면  
동해의 해돋이를 이고 스키주로를  
날아내리는  
마시명칭촌들의 광명에 찬 모습  
들을  
방직공처녀들의 새 보급자리며  
육육아동병원, 위생과학자주택  
지구  
한쪽의 그림 같은 연풍파학자  
휴양소...

궁궐도 부럽지 않을 새 집들의  
문을 열고  
우리 장군님 꿈같이 들어서신다면

아, 사무치는 그리움 한껏 터치며  
만수대의 하늘을  
삼가 우러르니  
우리 장군님  
대들우에서 내려서신다

대들우에서 내리시여  
환히 웃으시며  
우리 거리로  
우리 집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걸어오신다

인민의 웃음소리를 들으시며  
무궁창창한 앞날을  
태양의 미소로 축복해주시며  
장군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 만수대의 하늘을  
창창 머리우에 없고  
세계의 중심에 거연히 솟아올라  
진군의 큰걸음 내딛은  
조국이어 나의 조국이어

오늘은 그대의 존엄  
누리에 빛발치고

오늘은 그대의 힘  
우주에 용용히 뻗쳤거늘

이 땅우엔  
새날의 창문들이 즐겁게 열리고  
창조의 벽찬 숲결이 태동하고  
어디 가나 어디 가나  
아이들의 노래소리 명랑하거늘

어떻게 다시 밝아온  
이 나라의 아침이나  
어떻게 다시 일떠선  
이 나라 인민이나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어깨에 떠메시고  
력사앞에 나서시던 피눈물의 나날  
우리의 김정은동지  
결연히 하시던 말씀

-나는 장군님의 유혼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났다  
무조건 끝까지 관철할것이며  
이제부터 장군님을 대신하여  
내가 조신의 새벽문을 열것  
입니다

아, 새벽문 새벽문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인민을 품에 안고 잠 못 드시던  
장군님  
한평생 남먼저 여시던  
이 나라의 새벽문

그 새벽문을 나서신  
우리 원수님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  
병사들을  
장군님의 마음으로  
한몸에 안아주실 때

원수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운명을 맡기며  
병사들은 들었다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이  
다시 높뛰는 소리를

그리고 보았다  
피눈속에 불꽃처럼 흘러들며  
천만아들딸들을 애국으로 부르는  
장군님 그 심장의 불길을

원수님은 이렇게 오시었다  
3년을 하루같이  
조선의 새벽문을 여시고  
병사들을 찾아  
인민을 찾아

이렇게 걸으시었다  
작은 목선으로 날바다도 헤치  
시며  
건설장의 새날도 웃으며 맞으  
시며  
눈비오는 전선길  
삼복철강행군길...

말해보라  
그리움의 3년세월이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빛내이시려  
원수님 기울이신 고귀한 그  
충정울

장군님 앞에  
언제나 전사의 보고 올리시며  
그이 이어가신 자욱자욱을 따라  
영생의 해와 달이 어떻게 흘렀  
는가를

그이의 마음 그이의 맘이 스민  
저 푸른 전야  
저 높은 언덕, 저 첩단의 기계바다  
저 황홀한 새 거리가  
장군님께 드리는 꽃다발이 아니  
었던가

은 나라의 그 꽃다발들을  
정을 다해 열을 다해 엮어가시며  
장군님 뿌리신 부흥의 씨앗들을  
세상이 부럽도록 민발하게 가꾸어  
오신  
우리 원수님

아, 장군님처럼  
자신의 심장을  
불길로 태우시며  
이 조선을 안고 걸으시었다

애국의 불이  
열풍이 되어 용암이 되어  
쏟아번지거니

그 열풍에 한번 닿으면  
수수만년 잠자던 봉우리도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문명의 메부리로 태어나고

그 뜨거운 가슴으로  
소중히 품어안으면  
강기슭의 작은 조약들도  
산악같은 언덕로 솟아나는  
그 불

총대에 재우면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이  
원수들의 아성을 태워버릴  
미싸일이 되고  
불벼락이 되고

미래를 위해 타오르면  
우리 아이들의 노래가 되고  
밝은 웃음이 되고  
아영소가 되고  
원아들의 별새상이 되는

오, 그 불은  
장군님께로 달리는 우리모두의  
그리움이며  
천만군민의 심장에 타번지는  
영원한 불길인  
김정일에국주의!

김정일에국주의로  
삶을 불태우는 천만인민  
애국으로 몽치여  
산악처럼 일떠선  
우리 인민을 당할자 없으니

그 거대한 힘  
무한대한 힘에 떠받들려  
바야흐로 눈앞에 솟아오르는  
김정은원화제일강국을 보라

이제 보라  
원수님의 발사명령을 받은  
우리의 위성들이  
불꽃기를 내뿜으며  
만리장광에  
어떻게 거세차게 추겨쳐오르는  
가를

공화국의 존엄이  
눈부시게 지구를 휘감고  
민족의 환희가 우주에 닿는  
영광의 순간들이  
어떻게 즐거차게 이어지는가를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에서 타오른 불길  
영원한 애국의 불길이 되어  
시대를 밝히고 광명한 미래를  
펼치나니

장군님의 자애로운 그 영상  
우리 원수님의 심장속에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무궁토록 빛나는  
영생의 세월이여  
조선의 해와 달이여

오, 천년만년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모든 영광을 맞이하고 또 맞이할  
위대한 나의 조국이어

그대의 품에 더욱 푸르러지는  
산천에  
피같은 땀을 묻으며  
그대 위한 성전에  
한몸 불같이 되어  
그대의 아들딸로 우리 살리라

기쁨도 슬픔도 영광도  
그대와 함께 한 천만군민은  
그대가 준 심장을  
그대를 위해 바치리라  
우리 장군님처럼 살리라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부활은 후손들이  
대대손손  
그렇게 살리라

무궁하도다  
수령님 손들어 가리키시는  
저 아득한 미래의 환골까지  
장군님 안아올리신  
내 나라의 맑고 푸른 하늘은

오, 우리 장군님  
태양의 축복을 보내신다  
꿨음으로 약동하며 비약하는  
이 강산을 한몸에 안으시고  
백두산대국의 앞길에  
영원한 승리를 축복하신다!



